

프놈펜에서 보내는 기도편지 7



수술을 배우는 소파이, 유덱
과 함께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메르스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의 뉴스를 이 곳에서도 접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빠른 시일내 진정국면으로 돌아서도록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이곳도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매일 40도를 웃도는 날씨지만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의 일정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메르스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도, 메르스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더욱 마음에 근심이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날로 발전하는 캄보디아 가운데 더 이상 복음이 발 디딜 틈이 없어지고 가난한 이 곳 사람들의 마음에 점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씩 채워져가고 있는 것들을 느낄 때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이 곳은 기독교에 대해 열려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외적인 핍박이 없이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한해 두해 이 곳을 살아보니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결코 만만치 않은 “닫혀짐”으로 더 척박하고 곤고한 땅임을 느끼게 됩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를 거두기도 전에 밀려오는 이 거대한 영적인 어둠의 세력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겸손히 섬기자고 모여든 많은 선교사들의 삶에도 이러한 영향으로 해가 갈수록 영적 고갈이 심각해지고 더욱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영적인 일깨움을 주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없다보니 각개 전투의 삶을 살다가 쓰러지고 떠나가는 아픔들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최근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서 내 열심을 가지고 쌓아가는 사역과 성과 위주가 아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그분께 나아가 이 땅에 있게하신 이유를 잠잠히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분 한분 떠나가는 의료 선교사들을 옆에서 보면서 로딩이 더 많아질수밖에 없는 걱정보다도 이들이 떠날 수 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을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명 이상을 보는 헤브론선교 병원도 이제 내과 선생님 두분이 다 떠나게 되어서 내과의 협진이 필요한 외과로서는 앞으로가 쉽지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이제 시작하고 있기때문에 공백을 함께 채워갈 의료진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곧 떠나는 마취과 의사(가운
데여자선교사)와 함께
Mercy Medical Centre
에서

환자는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고, 지방을 비롯한 다른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많은 암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뇨기와,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도, 어떨때는 마취까지도 혼자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수술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술을 집도하기 전에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일 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수술을 마치고 또 완치되어 나가는 환자들을 보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기쁩니다.

어제는 4년전 왼쪽 허벅지에 화상으로 피부가 구축이 되어 무릎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성형외과적인 수술인데다가 어린 아이를 전신마취 해야하는데 마취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국소마취와 아이를 재우며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들어가기전에 많은 분들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저희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수술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처부위가 잘 아물고 회복되어 아이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보게 되길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곳에 수술을 받고자 오는 환자 중에는 거의 말기에 손을 쓸 수 없는 암환자들이 참 많은데 이런 한사람 한사람 거치면서, 안타까와 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육체적 고통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게 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들의 아픔을 보며 같이 아파하지만, 궁극적인 소망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이들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도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어제 화상 구축에 대한 수술
을 받은 후 병실에서

한국에서나 이곳에서나 외과의사는 수술과 진료 그리고 레지던트 수련을 위한 강의 준비와 교육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복음이 필요한 환자들을 섬기고 미래 캄보디아 의료를 위한 신실한 기독 의료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특권이라 생각됩니다.

8명의 레지던트 중에 소파이라는 성실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며 가르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이제는 제법 혼자 간단한 덩어리를 제거하거나 조직 검사를 능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하고 기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친구에게 탈장과 맹장수술 등 기본적인 외과수술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유덱이라는 친구도 외과에 관심이 있어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외과 수술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미래에는 이들이 암수술을 비롯한 외과적인 중요한 수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기술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실한 신앙을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게 잘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지던트 수련과정중 봉합술 연습장면

한가지 저희 가정의 중요한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몇달 전부터 무더운 날씨에 의찬이가 심한 피부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4월 초에 시작한 가려움증과 피부질환이 2차 감염과 곰팡이 균의 감염으로 전신에 많은 부스럼과 진물이 나오는 결절성 양진(prurigo nodularis)으로 발전되어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달 전에 아이들 학교로 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의찬이 의준이 두아가 모두 캄보디아에서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적응이 어렵고 여러번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 리더십과 멤버케어팀의 지원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가족 상담을 받도록 연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 의찬이는 지금 다니는 학교를 옮길 준비들을 하려고 합니다. 의준이는 다음 학기를 더 지내보면서 상담선생님과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사역의 필요들은 너무나도 절실한 지금이지만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상담 결과를 보고 다시 선교 본부와 조율하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중요한 시점이라 여겨지며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캄보디아에 지속적인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거대한 세속의 흐름에 맞설 기도의 운동이 회복되도록.
2. 바쁜 사역가운데 선교사들이 자신의 계획과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민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그분의 시각과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3. 헤브론 공동체 안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어져 참된 연합이 있어지도록, 한국 선교사들과 현지 의료인들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깊어지고 더욱 견고한 동역자 관계가 세워지도록
4. 함께 동역할 장기 의료 선교사를 보내주시도록(내과,외과,산부인과,마취과, 수술실 및 중환자실 간호사 ..)
5. 6월에 잡혀있는 많은 암수술과 환자들을 위해 -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각 가정과 마을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6. 6월 29일부터 시작될 가족 상담을 위해 -특히,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마음에 힘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 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메일: lservant5@gmail.com 김재선 +855-77891422, 김리라 +855-77891420/070-8278-4868 (한국내 통화와 동일)

우편: p.o box 2013, Phnom Penh3, Cambodia 077 891 422 JAE SUN KIM (EMS)